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	
배포일자		2023 8 10 () 총 3 회			
담당 부서	산업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정책팀장 김진이 ☎ 40-4251 • 당사 ☎ 40-42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1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수출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나선다

- 10일, 금융감독원·하나금융그룹과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 협약 -
- 하나금융그룹, 인천 기업에 사회가치경영(ESG) 종합 컨설팅 무료 지원키로 -

인천시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도입 의무화 등 수출 규제로 힘든 중소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하나금융그룹과 힘을 모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0일 하나 글로벌캠퍼스에서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과 함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사회가치경영(ESG) 실사는 기업의 납품·협력업체까지 포함해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공급망 내에 환경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사회가치경영(ESG)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수출 길이 막힐 수도 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으며, 올 6월 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유럽 의회의 표결을 통해 승인 발표되면서 인천시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기업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인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침

또한, 수출 중소기업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탄소배출 측정, 인권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인적·물적 여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회가치경영(ESG)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금융권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지원을 하는 최초 사례로 중소기업의 사회가치경영(ESG)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기관별로 ▲인천시는 중소기업 선발 ▲하나금융그룹은 사회가치경영(ESG) 컨설팅 제공 ▲금융감독원은 전체 업무협약에 대해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급망 실사 등 사회가치경영(ESG)에 관한 동향 및 정보 공유,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사회가치경영(ESG)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이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금융그룹에서는 인천시의 사회가치경영(ESG) 지원을 원하는 (주)강운공업 외 5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등 환경·인권 부문 등 사회가치경영(ESG)과 관련 진단, 평가 및 솔루션 제안 등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시 수출기업들이 전 세계적 사회가치경영(ESG) 규제 대응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하나금융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우리 지역 수출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가치경영(ESG) 컨설팅 지원 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10시30분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